

# 삼양옵틱스

삼양옵틱스 XEEN CF 시네 렌즈,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수상한 XEEN CF.

글로벌 광학 전문 기업 삼양옵틱스는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67년 역사를 갖고 있다. 우수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세계적인 상징으로 심미성뿐만 아니라 사용가치와 사용성, 인체공학적 디자인, 실용성, 실행가능성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9월 삼양옵틱스가 출시한 XEEN CF는 최근 디지털 시네마 트렌드에 맞춰 전통적으로 무겁고 큰 영화 렌즈를 경량화하고 탄소섬유를 채용해 더 견고하게 제작됐다. 최신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에 탑재된 대형 이미지 센서에 대응하면서도 1kg 이하 가벼운 무게로 드론, 짐벌 등 무게에 민감한 장비와도 사용 가능하다. 어두운 촬영장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휘도 야광 폰트를 적용했다.

전면 구경이 95mm로 컴팩트하고 초침 및 조리개 링의 기어 위치를 통일해 매트 박스, 팔로우 포커스 등의 액세서리의 탈착 역시 용이하다. XEEN CF는 현재 24mm T1.5, 50mm T1.5, 85mm T1.5 총 3종을 판매 중이다. 금년 1분기 이내 16mm T2.6과 35mm T1.5이 추가로 출시돼 시네 프라임 렌즈 세트를 완성할 계획이다.